

제2의 중화주의를 꿈꾸는 중국에 가다 <2>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전망

계획·시장 통일된 계획적 상품경제체제

공유제 원칙 동요·도농간 격차 심화 등 문제 일어나

글쓰는 순서

1. 중국식 사회주의의 의미
2.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전망
3. 중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강 준 영

(외대 중국어과 강사)

말스가 자본주의에 대한 대대반격으로 사회주의 경제학을 제기한 이래 이 학설은 소련 정권의 수립과 레닌을 계승한 스탈린의 영향으로 동구권 사회주의 정권에서는 일종의 종교적 권위까지 갖게 됐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1949년 건국 초기부터 소위 '소련모델'이라는 고도로 집중된 중앙계획경제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몇십년간에 걸친 실험의 결과 사회주의 생산이 저하되어 국민생활이 곤궁해졌고, 이리하여 중국에서도 과거 사회주의의 국가들이 시도했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각성이 시도됐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기초가 되는 통소판 노선의 등장이며 이는 곧 1978년 12월을 거치면서 중국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최근 통소판의 건강상태와 더불어 주목의 초점이 되고 있는 통소판식 대 이후의 중국경제를 간단하게 전망해기로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형성과정

중국이 1949년 제 1차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천명하기까지 몇 년간의 과정을 거쳐왔다. 계획체제의 지도하에 중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기타 대다수의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장무용론과 계획만능론을 신봉하면서 고도로 집중적인 중앙계획경제체제를 실행했다. 1979년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중국 지도부는 개혁과 시장경제의 비율을 논하면서 소위 시장조절을 보완하는 개념을 도입하게 됐다. 1982년에는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고 시장조절을 보조하는 '주요부분을 계획화, 일부부분을 시장화'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재원적이나마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중국은 이에 따라 실험이 아닌



지난 78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새로운 노선을 정했다. 이는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를 어떻게 화합하는지는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중국의 경제는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한겨레21

상품경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고 1987년 13차 대표회의를 통해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체제는 반드시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여야 한다고 천명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내용

1992년 10월 12일 중공은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보좌를 가속화하고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더욱 큰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정치보고를 통해 중국 경제개혁의 목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에 있음을 천명했다. 대담이 이 체제의 확립을 위해 제 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차 회의에서 이 헌법수정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단어를 헌법 전문에 삽입하여 법적으로도 마련했다. 중국지도부는 과거 1949년에 걸친 개혁·개방정책을 총괄하면서 1990년 11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공식적인 결정을 발표했다. 이 결정은 "당에서 확정한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전제조건을 계획 수립하는 것이" 1990년대 경제체제 개혁을 진행하는 행동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현 중국 시장경제 체제의 일부 조정자인 국무원 부총리 주룽기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수립하는 것은 이전에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은 가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에

있어 전통적인 계획경제의 지령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모든 불합리한 기득권이의 장애에 직면해 있다"고 말해 체제 이행의 어려움을 표시한 바 있다.

중국형 시장경제 모델의 선택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유형의 시장경제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가? 2차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구체적인 발전 경험이나 방법은 일본과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범위에서 유교적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일본 모델에 속한다. 중국은 이를 '동아 모델'로 분류하고 이들과는 달리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특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런 모델의 추구는 역사적 전통이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유교문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구조 경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개방 독재'로 분류되는 동아모델은 정부 주도형 발전 모델이라는 점에서 현 중국의 정치체제와도 많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모델이다. 물론 기타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많은 장점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국은 전체적으로 강력한 정부 주도하에 개혁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

중국은 과거의 계획체제시기나 향후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막론하고 다음의 5가지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불변의 가치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공유화하는 공유제 원칙, 노동력에 따른 소득배분 원칙, 경쟁의 진흥성을 배제하고 자원을 묶는 단결 원칙,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안전감을 갖게 하는 안전 원칙, 전체 이익이 국부이익에 우선하는 원칙 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많은 시장화로의 이행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공유제 원칙'과 '이익주체'의 모순이다. 공유제 원칙은 소유권이 사회주의에 불리하다고 한때 대중은 그대로 출현한 경험을 쌓았으며 절대 다수의 민중들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안전과 단결은 인민위업의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본적인 모순이 내재해 있다. 이런 가치관의 혼란은 시장경제의 발목을 잡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기에 중국경제는 체제과도기적인 혼란을 겪어온 경제발전의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중국인구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농촌과 도시근로자의 격차 해결, 국영기업의 퇴장사태, 실업인구의 누적, 기업부패 부패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의 확산 및 악화, '제후 경제'의 대두에 따른 분권현상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중국경제의 장애

중국정부는 최근 들어 그동안 개혁·개방과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배제돼 온 각종 부조리와 부작용의 해결을 위한 반부패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확대를 위한 금융, 재정, 세제 등 경제사회적 하부구조 정비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행이라는 당면목표속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이같은 노력은 끊임없는 증대와 환율의 안정 등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던 게 사실이다.

중국정부는 최근 통소판의 사망이 일어난 가운데 고수령상을 당면과제로 천명했다. 필자는 다음의 이유들로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첫째, 현재까지 중국지도부의 개혁·개방 논의가 개혁·개방 자체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발전 논리가 경제개혁의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정부는 이미 경제개혁으로 세계경제체제 속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고립적인 체제로는 더 이상의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 아시아 네 마리 용의 임금수준과 원가차이가 상당히 올라 산업구조가 자본집약형 위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와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중국의 노동집약형 산업 발전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지난 1992년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전대미문의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일반 대중은 그대로 출현한 경험을 쌓았으며 절대 다수의 민중들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통소판이 존재하던 그렇지 않은 결국 성장과 개혁, 그리고 중국의 안정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국 지도부가 기존의 정책을 벗어나는 참신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 상황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이제까지 중국은 과거 어느 국가에서도 시도해 본적이 없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접목이라는 도박을 감행하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다. 그들이 이미 시장경제를 표방한 이상, 시장경제의 추구로 인해 결정적으로 국가관이나 공산당의 영도가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는 이상 결국 통소판의 부작용을 감수하는 한에서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개방경제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중국이 1978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대내적인 경제활성화와 대외적인 개방정책의 실시를 천명한 이후 대외경제개방은 중국 경제정책의 추진에 중요한 핵심과 내용이 됐다. 중국은 1980년 경제특구의 성립을 시작으로 1984년 14개의 연해 개방도시를 지정했고, 82~88년에 걸쳐 6개의 연해 개방구를 설치했다.

이후 90년에는 내륙지역의 27개 내륙 개방도시를, 92년부터는 변방지역의 주요도시들도 개방하기가 이르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개방은 경제특구의 시범적인 운영을 거쳐 동부연해지역의 실험과, 그리고 내륙 및 변방지역까지도 대외개방을 하는 전반적 개방의 형태로 점진적인 발전을 해 왔다.

국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과 기술이 결핍돼 있으나 대량의 노동자원을 갖고 있는 중국은 시범적으로 경제특구지역에 대외개방의 적응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중국은 1979년 이전까지는 철저한 중앙집중적 경제에 의해 운영됐으며 자력강성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런 틀을 시범적으로 타파하고자 실시한 것이 바로 '특구 정책'이다. 특구에서는 외자 도입, 이윤에 의존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을 위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특구도 시장경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각종의 다양한 경제성능의 출현도 받아들여졌다.

심천·주에 등에 경제특구가 건설됐던 것은 입지적 조건에 대한·홍콩 및 마카오 회교를 이용하고자 했던 점이 명백하며 정치적으로도 홍콩문제나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남지역의 대외개방과 경제수준의 상승이 절실히 요구됐던 것이다.

경제특구의 성립은 간단히 말해 넓은 세율(특구의 지역이 50%의 소득세를 내는 것에 비해 소득세를 15%만 징수한다)과 토지 및 열기의 노동력과 이를 통한 무역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기업, 회교 자본 및 홍콩·대만 등의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이었다.

자본주의 모순경제 도입의 시금석 경제 특구



또 중국정부는 자본과 기술 외에 선진적인 경영관리기법도 습득했으며 외환획득이라는 금전적인 소득도 올렸다. 이 경제특구의 성공은 중국 개방의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를 기초로 중국의 대외개방은 앞대 전진을 보게 됐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부작용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우선 일부 지역에 대한 특혜조치는 일부 사람들에게 자부(致富)의 기회를 제공하여 동서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켰다.

둘째, 자본과 기술의 도입에 있어 법제나 제도도 미비하여 외국기업을 중국에서 유치하는 기간이 길었다. 셋째, 이들 지역은 자본주의 방식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 부패, 경제범죄의 황폐, 탈세 및 알바의 형성을 부르고 있다. 또한 연 20~30%에 달하는 물가상승, 임금 폭등과 각종 투기행정의 악화로 다량의 자금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업들도 있다. 중국정부도 더이상 외국기업에게 특혜를 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특구정책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확보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더 이상의 자본주의적 경제가 뿌리내리는 것을 막아줄 수 없는 지도부의 정책이기도 하다.

어쨌든 중국대외개방의 시금석 역할을 했던 특구정책은 이제 과거와 같은 폭발적 성장이나 뚜렷한 우대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중국시장의 매력은 내륙지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알 필자의 동영

글쓰는 순서

- ① 중국·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와 전망
- ② 중국 개방경제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 ③ 중국 군사력의 현황과 외교적 의미

대중세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와 함께 또 다른 내가 되어 -

집과 도서관만을 서클버스터처럼 오가던 나. 그야말로 소극적인 대학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동등중 대중세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모르게 오색깃발의 손짓따라 흥겨운 놀이마당으로 뛰어나와 덩실덩실 신명나게 춤추고 추고,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목청껏 노래도 불렀다. 대중세의 열기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 캠퍼스의 가을밤, 친구들과 어깨동무로 만든 하나의 고리속에서 나는 보았다. 평소와는 다른 나의 새로운 모습을... 가을 대중제가 끝날 즈음, 나는 진취적인 대학생으로 다시 태어나, 패기와 자신감이 넘치는 대학생상을 보낼 것이다.

세계제일의 할거기임

포항제철

● 우리 문화 실리기

- ① 음악 - 산머 산, 공운
- ② 영화 - 영화진흥법
- ③ 방송 - 방송법
- ④ 출판 - 출판법
- ⑤ 공연 - 공연법
- ⑥ 생활



80년대 독립영화의 이론 성과 중점을 이루는 장산곶매의 (피업전)을 보드했고, 이는 곧 영화의 홍보 역할을 훌륭히 하게 된 셈이다. 이 두 영화의 상영은 사람들이 모여 공평한 '소문'이 퍼진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정한 창작·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3일 문화부에서 국회에 입법예고한 '영화진흥법'이 바로 그 이유다.

조여오는 족쇄의 틀, '영화퇴보법'

영화진흥법, 학생들의 실습 작품까지 검열 요구

입법예고한 영화진흥법 제정(안)을 보면 "미래 영상산업 시대에 능동적인 대응책의 구축과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산업의 구조와 영상산업의 제반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창작자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치가 취함"이 제정 이유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2조(정의)와 제4조(영화의 종류)에서 '단편 영화' '소형영화'를 새롭게 법의 규제대상으로 명시, 제12조(의)에서 "영화는 상영 전에 공영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영관리위원회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만든 문화부 영화진흥과 담당자는 "소형 단편영화를 법에 명시했다가 곧바로 새로운 심의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행 심의제도는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모호한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창작자의 편의를 증진해 준다"고 밝힌다. 하지만 기존의 영화법에서 '소형 단편영화'를 제외한 장편영화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더 노골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영화진흥법안은 지난 88년부터 영화진흥

회 등에서 국회에 입법을 제안해 왔다. 그들의 주장은 첫째, 영화의 검열을 폐지하고 민간기업에 의한 등급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영화의 배급제도를 정비하고 공영법상의 공영권 개념과는 다른 '상영권'과 '제2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된 영화진흥법에는 어느 것도 담겨있지 않은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심의와 등급제를 갈망하던 영화진흥법의 제정에 힘을 쏟았던 관계자들의 의욕을 꺾어 버리고도 남을 법한 것이 아닐까 싶다.

문화체육부(문체부)와 입법예고 이후 결성된 독립영화인 모임인 독립영화발전대책추진위원회가 소환 단편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의 철폐를 요구한 데 이어, 영화학과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의 16mm 창작영화축제인 '96대학영화제(한국영화사지주 주최)'의 참가를 집단거부하는 등 그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영화교수협의회는 "문화부는 먼저 심의를 내세우기 전에 학생, 단편, 비극 영화 전담관의 마련이나 학생들에게 지원방안 등 최소한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밑거름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심의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국진기자

□ 서울예술전문대학 영화학과 과회장 이강희를 만나

“자기검열이야 말로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심의제도로 아무리 심의가 형식적인 것이 될 지라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겐 심적 부담으로 다가와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창작·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서울예술전문대학 영화학과 이강희교수의 입장은 이렇다. "소형 단편영화의 80%가 대학생들이 실습이나 졸업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대로 한다면 이제부터는 자비롭게 만든 작품을 학내에서 상영하는 데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학교의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를 어떤 것대로 재검열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며 그는 영화진흥법이라는 이름과 겹치지 않게 영화활동의 폭을 좁히는 것은 비판과 자유 실현정신을 강조하는 독립영화의 본질을 감화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장선우 감독이나 임권택 감독을 존경한다는 그는 "자기 검열을 갖고 영화를 만드는 것은 아름답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자신의 영화철학은 사람들의 생활과 심리를 그려내는 것이라고 한다.

86년 독립영화사 '청년'에서 농촌문제를 영화화한 '과랑새',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어머니 당신의 아들', 전교조에서 배배를 잡은 장안에서 재작한 '단편교문을 열고' 등 많은 독립영화들이 영화법이나 공영법에 걸려 상영되지 못하고 있다.

"과업연"은 아직까지도 위험 상황에 계류 중이다.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언제라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검열제도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재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영화문화의 죽기'입니다"며 앞으로 모든 영화인들이 서명운동과 리본달기 등 "가위질 심의제" 요구의 목소리를 확산해 줄 것이라고 한다.

문화부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가을날 나의 결실을 돌아본다

시집 '죽은이들의 계절'

가을은 단단하고 싹튼 온갖 것들로 가득하다. 첫사랑에 들든 소녀의 얼굴처럼 빨갛게 달아오른 감, 배가 터져 나올 자신의 싹을 자랑하는 밤송이, 푸른 과일처럼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를 키워가는 일국, 가을이면 이들은 온갖 꽃처럼 나의 시간을 유혹한다. 하지만 이들의 유혹은 나의 시간을 그리 오래 잡아두지 못한다. 이상한 말장난 내의 눈길을 묶어 두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바람에도 고개를 뒤흔트릴 정도로 바람맞게 뒤흔들리는 흔들리는 계절의 이미지이다. 하필이면 보잘 것 없는 계절인가?

물론 나도 단단하고 싹튼 것을 무한히 좋아한다. 그들에게는 중박, 말박의 불꽃을 무한히 쏟아내며 여름이 있었고, 쓸쓸한 새벽녘에 속이 울려서 스스로 단단해지는 법을 깨달은 가을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죽은이들에게 그런 시간은 미미했거나 아주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삶 역시 이런 죽은이들의 형의를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나의 눈길을 붙잡아 주는 것은 죽은이 안에 응축되어 있는 향신료 나뭇잎들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나를 휘어잡고 그 시절부터 나는 시문학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나의 시문학 열정이 삼십살의 몸무게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

사월문학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시를 쓴다. 그리고 이번에 그간의 글들을 모아 시집 '죽은이들의 계절'을 엮었다. 시집에는 그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전한 감동처럼 흐른다. 나는 그들처럼 해마다 가을이 다가오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들은 시를 쓰면서 스스로 단단해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겨울이 슬픔 다가선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단단하고 싹튼 것인지.

우리들의 대치는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파산한 자영업자/무분별한 가뭄을 뚫고 땀이 떠오르며/마리 골짜기에 울린 이불을/부부 손에 놀리는 어둠/가뭄 속에 밀려나/부처의 말이 이슬의 벼를 태워나/부은 반기락/우리들의 수면은 불을 붙인다.

유상도

(시학·독일어과 2)



각종 행사에 노래창단한 '청년'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공연이상이 노래창단한 청년의 '출입'

대학생활의 훈훈한 풍경 노래

노래창단한 '청년'이 지난 31일(월)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출입'이라는 주제로 첫 공연을 가졌다.

1부 무대는 학생들의 실존적 사상을 바탕으로 '바위처럼' '꿈에서' 등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로 각각 노래창단가 활동하고 있는 비학원들이 준비했다. 이어서 2부는 현재 '청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 7명의 무대로 꾸며졌다. 졸업을 앞둔 주인공이나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심정을 말하고자 지난 6대 학생들의 마음을 담은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때 멀티미디어에서 컴퓨터의 투영을 담은 시·집

회장은 노래와 함께 어우러져 지난날의 추억을 연상케 하는 '호수'를 연었다. 마지막으로 3부 행사에서는 군부중간 산배가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선배들과 따뜻한 애정을 나누게 됐다.

중창노래뿐만 아니라 가창력도 뛰어났고 자신들의 공연만이 아니라 관객들까지도 배려해주는 훈훈한 무대였다. 비가 오는 가을에 무대배는, 관객의 호응에서 대강당으로 변신이 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공연이 됐다.

김태형기자

웅인

자연대·공대, 학술문화제 개최

지난 31일(월) 산간의 동로에서 자연대·공대 주최로 학술·문화제가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모현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자신들이 전시하고 준비한 자료들을 설명하며, 숲놀이 등을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영재(자연대·통계 3)은 "우리들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 가까운 모현중학교의 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교과서만을 보고 공부하기 보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사월문학반 정기 시화전

지난 30일(월)부터 31일(금)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죽은이들의 계절'이란 시집을 발표한 사월문학반의 정기 시화전이 열렸다. 이번 시화전은 주로 일상생활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윤정혜(시학·불어 3)의 '사월문학반' 등이 전시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자신들의 인물 삽화가 함께 컬러 눈금을 곁들였다.

러시아어과 예술제

지난 4일(월) 자연대 대강당에서 러시아어과 예술제가 열렸다. "개인의 자유와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예술제는 러시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양하게 준비했다. 풍물패 '한소리'와 합창

문화 단신

단의 공연 등이 준비됐다.

행사를 준비한 정성현군(시학·노어 3)은 "예술제의 전통을 복원한다는 의미로 과학생물학과 함께 참여해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과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다.

서울

베트남어과 영화제

베트남어과 영화학회가 지난 1일(수)부터 2일(목)까지 이틀간 '성, 동성(Sex, Same Sex)'의 주제로 동성 영화제에서 '동성애'를 다룬 두 편의 영화 '결혼 피로연'과 '이리다'를 상영했다. 영화제를 맡고 있는 이민우(동양·베트남어 1)군은 "베트남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과서만을 보고 공부하기 보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상경대 노래대 '맥박가요제' 상경대 노래대 '맥박가요제'를 개최한다. 이번 맥박가요제에는 상경대·국립한양대 등 16개팀이 참가신청을 했다. 심사기준은 우선 가창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그 외의 무대매너, 관객의 호응 그리고 창작적인 경우에는 가창력이 부가된다.

윤남수(상경·경영 2)군은 "출연곡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각자에게 다양한 기회"라고 밝혔다.

참가하는 전의대인의 행사로 만들고자 한다"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불어과 원어노래모임

'노래를 읽는' 공연

지난 31일(월)부터 4일(목)까지 대강당에서 불어과 원어노래모임 '노래를 읽는' 제3회 정기공연이 가졌다. 영화 '타타린'의 주제가와 권진영의 '산타바'를 번안하여 부르는 등 모두 19곡이 선보였다. 기획을 담당한 주진영(서양·불어 2)은 "불어를 배우고 익히는데 있어서 '언어'보다는 '노래'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생각한다"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외대연극회, '상자 속의 여자' 공연

외대연극회는 지난 1일(수)부터 4일(목)까지 제8회 소극장 공연 '상자 속의 여자'를 무대에 올렸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통해 순환적인 삶에서 끊임없이 바뀌어 가는 몸짓들이 보여진다. 반면, 죽은 아이에 집착하는 한 여인이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간직하려고 하는 내용이 전개됐다.

중국어과 종합예술제

'95 중국어과 종합예술제가 지난 1일(수)에 시작해 7일(목)까지 열릴 예정이다. 1일(수) 소극장에서 열린 '연경'의 제6회 정기공연이 열렸고, 3일(금)에는 춘·풍패, '화모의' 제4회 정기공연이 개최됐다. 1박2일의 관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연경'의 공연은 흥분·대만의 가요를 중심으로 지평도 있는 가수의 노래를 선곡해 밝혔다.



나 스스로, 우리부터 먼저—
상투(?)적인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젊은 생각, 앞선 기술로 항상 새롭게 변신하는 기업-효성그룹을 위한 효성인들의 다짐입니다.

상투는 개화기까지 유교문화와 지고 새로운 문물을 거부하는 상징이었지만, 결국 남의 손에 의해 사라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사대를 정하고 과욕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효성그룹

- 효성그룹: 효성-이온 ● 효성화학 ● 효성제약 ● 효성제철 ● 효성제강
- 효성건설 ● 효성에너지 ● 효성산업 ● 효성서비스 ● 효성증권
- 한국전력 ● 한국가스공사 ● 효성에너지서비스 ● 효성에너지서비스
- 효성인프라서비스 ● 효성인프라서비스 ● 효성인프라서비스
- 효성인프라서비스 ● 효성인프라서비스 ● 효성인프라서비스

차별한 국제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효성은 우리산업의 기반을 다지며, 사과의 상투처럼 남아있는 모든 상투적인 생각을 스스로 남보다 먼저 버리고 젊은 생각, 새로운 기술로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 제66회 학생의 날 행사 및 향후, 한총련 사업 일정

이 시대 청년의 임무, 조국통일에 복무하는 것

한총련, 11월 중순부터 5·18투쟁에 주력...12월 1일 제2차 동맹휴업 제안

1995년 11월 3일, 광주와 한총련에서 발생한 일본학생과 조선학생 간의 싸움은 단순한 학생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는 일제강점기부터부터 해방을 위한 투쟁이었다.

‘학생의 날’의 시원이 된 이날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대학생들은 만인폭적인 5·18학살자 처벌이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지난 3일(금) 한국대학학생회연합(한총련)은 학생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집회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학생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균관대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본행사에서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과 민주수호투쟁위원회가 ‘5·18학살자 처벌과 노태우 비자금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원구(한양대 총학생회장)가 ‘반북대표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연설을 통해 “한시기 청년의 시대적 임무는 조국통일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 정부가 대선 자금에 대한 완전공개를 통해 5·6공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3일(금) 한총련은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곳곳에서 ‘학생의 날 기념식 및 5·18학살자 처벌과 노태우 비자금 수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이 시대 청년학생들의 시대적·역사적 과제는 바로 5·18학살자 처벌임을 확인했다.

“학살자에게 자꾸만 면죄부를 준다면 현 정권도 역사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다시금 대총학생회장도 노동운동 단합규탄과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한총련 의장 정태호(고려대 총학생회장)군이 수배중임에도 단상

에 올라 학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정태호 의장은 “청년학생들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돼 왔다”며 남한 사회에서 청년학생들이 가지는 위치를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종로공원에 서 재집결해 거리선전전을 하려했

회에 시민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많은 시민들은 유인물을 유포하고, 어리고 진압중인 경찰들을 향해 “잡으려는 사람은 왜 안잡고 학생들만 잡아가느냐”며 학생들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도 했다.

한총련은 이후 11월 중순부터 각 학교별로 진행되는 선거기간에는 선거본부로 중심으로 선전전을 진행하고 새로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11월 말에서 한달동안 5·18학살자 처벌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특별법 부결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2월 1일(금) 제2차 동맹휴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그동안 미뤄졌던 전·노체포결사대 조직과 국회적거농성, 백만학도 상경투쟁 등 적극적 실천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 지지사업으로는 후원금 모으기와 오는 13일(월) 전태일 열사 분신일과 맞춰 개봉할 예정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관람하기 등을 전개하고, 오는 11월(토) 연세대에서 한총련 문화의 밤을 개최할 계획이

다.

박현숙 기자

시 논

‘실천’으로 정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갑시다

1929년 일본학생의 조선 여학생에 대한 폭행에 분격한 광주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일대모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는 광주를 사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일본과 만주에 있는 조선학생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1백94개 학교, 약 5천4백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학생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만주침략 등에 의한 식민지 약탈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간회를 중심으로 일제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거세지는 사회화 분위기를 바탕으로 일어난 이 운동은 어찌보면 학생운동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년학생 여러분! 변명과 적들의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민족내부의 단결된 힘으로 통일조국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분열로 국제사회의 미미로 전락할 것인가라는 기로에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성정치와 낡은 정치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운명의 새시대를 개척해야 할 중대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내외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이 때, 청년학생의 역할은 실로 막중합니다. 청년은 항상 민족의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 왔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진취적 기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60년대에



이창복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억압적 군사통치에도 굴복하지 않고 민족과 함께 투쟁에 앞장섰던 자랑스런 전통을 가진 청년학생들은 이제 변화된 상황과 정치에 걸맞은 활동과 투쟁을 준

면 정치적 협잡에 의한 중도반란으로 그칠 것 인가의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학살자를 처벌하고 부정

비해가 합니다.

학생의 날 66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청년학생들에게는 엄중한 과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의 학살로 등장한 신군부 세력이 불법무도한 집권과정을

은폐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온갖 부정과 비리가 국민들 앞에 폭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살자를 단죄하고 부정축재의 주범 노태우를 구속함으로써 총체적 개혁과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일보장전할 것인가, 아니면

개방과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일보장전할 것인가, 아니면

개방과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일보장전할 것인가, 아니면

부패의 주범 노태우를 구속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바로 청년학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정의의 역사를 기록할 수도, 불의의 역사를 반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청년학생 여러분!

자신의 안위(安危)보다는 집단의 생명을, 자신의 입신(立身)보다는 조국의 운명을 먼저 고민했던 선배들의 소중한 전통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청년의 가치로 면면히 이어져야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민족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조국의 희망이고 민족의 자랑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에 따라 21세기 우리 조국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청년학생들의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자각하고 여러분의 고민과 실천, 그리고 민중사랑, 조국사랑의 의지가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에 소중히 담겨있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가져옵니다.

●민주노총을 알자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①

누구라도 ‘민주노총’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상은 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최근 국내적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곧 시위에 진출하게 될 예비노동자로서 ‘노동자들의 조직, 민주노총’이 대충 어떤 것일까 라고 대답할 수는 있겠다.

본문에서는 민주노총이 건설되기까지의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민주노총이 제기한 배경, 민주노총이 건설되면 이전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등을 간략히 정리해두고자 한다.

‘노동운동’하면 왠지 거꾸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50년동안의 ‘반공 이데올로기’로 하루 우리 사회에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우리의 조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현대사와 함께 인간답게 살기 위한 민중들의 노력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생각은 떨쳐버릴 수 있다.

일제시대 -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우리나라 자본주의 싸이 일제에 의해 강고히 파멸되고 모든 산업이 일본의 수탈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상되었다 - 예는 노동운동이 매우 활발했다. 모든 산업의 착취금급, 즉, 자본가는 일본놈이거나 일제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침탈하려고 들어온 자들이 노동자·농민들에게 잘해 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1백년간 억눌려온 노동자들의 지향

때문에 노동자들은 너무나 열악한 경제적 상태에서 최소한 굶주리지 않기 위해, 당시 개량화된 독립운동과는 달리 매년 수백건의 쟁의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지독한 침탈 덕분에 해방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 수는 남한에서라도 1천1백79개, 조합원은 3만4천 5명이나 됐다. (미 군정청 노동부자료 참조) 그리고 해방직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아래에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승만이 이를 그대로 버렸던 것이다.

이들은 이후 약 50년동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을 배려하려던 대한노총(이후 한국노총으로 변경)이라는 이름조직을 만들어 쟁의를 해체하고 남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지향점을 강고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이때부터 87년 노동자대투쟁 때까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 노동착취는 갈수록 혹독해져 갔다. 유신시절에는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수출위주의 산업정책을 펼치며 저임금 정책을 실시했고,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노총 체계를 산업별 노조로 전환 - 산별노조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전하면, 강력한 통제수단이 된다 - 강했다.

누구나 다 알겠지만, 오죽했으면 전태일이 열사가 됐겠는가?

그러나 80년대 들어 양적 경제발전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의식으로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30년간 지속해 온 저임금 정책

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을 점차 강화시켜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내외적 상황을 바탕으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

오, 대만사람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정신은 평범해서 내게 꼭꼭 숨어라

4650

외발추, 동문초청강연회 8일부터 새내기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장으로

‘새내기에게 자긍심을 함양’을 위한 주제로 동문초청강연회와 외대발원학생추진위원회(외발추) 주최로 오는 8일(수)부터 열린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동문초청강연회는 윤운수(필라 코리아 사장), 김진영(소실가), 최재혁(문화방송 아나운서) 등 동문선배 7명을 초청해 졸업 선배와 후배가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연회를 준비한 외발추 위원장 이종국(서양·영어 3)군은 “‘65학번들에게 외대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선배들과의 만남을 추진했다”라며 동문초청강연회의 취지를 밝혔다.

윤운수(필라 86) 필라코리아 사장(82일(수) 8시), 대학원 104호 정은아(필라 84)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9일(목) 5시, 대학원 104호

최재혁(터키어 80) 문화방송 아나운서(15일(수) 5시, 대학원 210호) 정만영(독일어 58) 한국일보 주필(22일(수) 5시, 대학원 104호) 지진호(영어 79) 세에프랑스 사장(23일(목) 5시, 대학원 104호) 최동진(영어 57) 한국방송공사 부사장(28일(화) 5시, 대학원 210호) 김진영(법학 76) 소설가(미정 210호)

김진영(법학 76) 소설가(미정 210호)

이 사람



“82년 사적으로 온 식구가”란 관을 쓰고 있을때 저를 구해준 분이 외대였습니다”라고 말하는 민형대씨는 앞에서 주름이 깊게 패인 안대를 아저씨였다.

지난 7월 윤원익의 숙·일직 문제를 서울북부지방법소사무소에 고발한 그는 회원을 앞두고 고인이 많이 보였다. “숙직이 9천 4백원을 받으며 30일에 한해서 발행권자를 하는 것은 윤원익의 노고를 누구도 양지 못하기에 이렇게 내가 나갔다”라고 법조고발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현재

□ 숙·일직 문제를 고발한 민형대씨를 만나

“자기 권리 못찾는 것은 학교 사랑의 태도가 아니다”

고인에 300명의 용인직 근로자들이 있지만 대학민국은 근로조건의 개선없이 적은 용인직으로 각 기관의 권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네들 문제야, 내가 고발하기 이전에도 용인직들은 졸업없이 고생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별 문제라는 거야”라고 말하는 아저씨 앞에서 그는 무안해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그는 그만큼 깊은 아저씨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학생들이 고생을 해야 할 때가 많아, 지나가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학생들 목소리에서 많은 힘을 얻거든”이라며 자기가 웃는 아저씨의 모습이 넉넉해 보였다. 정년퇴임을 서달할 뿐 그는 본교생활을 별 때만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아들도 외대를 다녔는데, 외대만큼 학생들이 배우고 못하고 있는 학교도 보기 힘든 것 같아. 특히 일부 행정직들이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 막둥이한테만 봐도 알수 있는거야 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이 무서하고 있는지를”라며 인문과 옆의 초라한 전화가 한 대를 가리켰다. “전교회는 지난 여름방학 전에 양평초등학교 학생회장들의 10여명의 단체를 통해 파견성 되었다. “등록금 다 내고도 제 권리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건국에 우리같이 못배운 용인직급들이야 말해서 별 하겠어”라고 말하는 그는 외대생들에게 마음껏 충고하고 싶었다. “국민학교 때부터 일기를 써온다는 민형대씨, 주동진 씨의 일기에 관한 미소가 머무는 때 외대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학으로 다시 될 것이다. 오은정 기자

학과, 동문인의 밤 진행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 선배와 재학생들간의 화합을 다지게 될 ‘동문인의 밤’이 오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독일어교육과 학생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본 행사는 노래패 ‘새내기’ 공연, 농구·피구등 체육대회 그리고 ‘동문인의 밤’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한 과회장 이원경(3)군은 “학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라서 여러면에서 미숙하고 어려움이 많다”라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재외 불교교육과’와 동문인의 밤’ 행사를 지난 4일(토)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동문선배, 재학생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던 이번 행사는 상송반 공연, 동문, 재학생 장기자랑과 15년간 본교에서 강

의하다 교향의 별기제로 돌아가는 마미 조 교수의 특별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동문인의 밤을 준비한 불교과 과회장 안진원(3)군은 “불교교육과 교수, 전배, 후배 간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루마니아어는 지난 5일(월) 어문관 문배에서 제1회 동문교향반의 날을 열었다. 약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은 다들들(사회과학)의 한국방송공사(사)의 ‘역사실록’ 비디오 상영과 노래패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 행사를 준비한 과회장 김원중(3)군은 “내년과 올봄 10주년을 맞아 선배후배간의 화합의 자리가 됐다”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제3회 안충장 학부포간담회 열려 학교 홍보 중점

금년 들어 안충장 총장이 외대를 홍보하고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충장 학부포 간담회’와 ‘일직 설명회’가 지난 3일(금) 오후 6시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서울지역 학부포,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원들과 심재영씨는 “학부포는 외대발원 기업인들이 주 목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 홍보가 중점이 됐다”라고 올해 간담회 가진 취지를 설명했다.

법대, 무료법률상담소 개설 동문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

지역주민과 외대생들의 법률문제를 시선으로 풀어줄 무료법률상담소가 법과대학 교수·동문인 호사·재학생들 중심으로 오는 6일(월) 활동을 개시했다.

법률상담소 이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상한 점수를 받고 월요일 오후에는 동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이 있을 예정이다.

법과대에서 마련한 법률상담소

상담소 실무를 담당할 변해철(법학) 교수는 “동문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참여해 커서 고맙다”라며 무료로 함께 일해준 동문에게 고마움을 표명했다.

서양어대, 편집학교 개회 편집이론·편집방법 강의할 예정

서양어대 학생회는 오는 7일(8)부터 10일(금)까지 각 과 편집위원 및 참가 회원자를 대상으로 편집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편집학교는 구제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외부강사 초빙의 편집이론, 과 단위의 편집위원의 실문과 자료집 편집을 지도하고 “각 과 편집위원들이 편집위원을 편집부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이번 편집학교를 개설한 의의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서양어대 학생회장 김윤식(영어 4)군은 “각 과마다 편집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신문은 제대로 발행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라며 “각 과 편집위원들이 편집위원을 편집부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이번 편집학교를 개설한 의의를 밝혔다.



케이블선 공사 현재 용인캠페르에서는 케이블선·통신·상수도 관을 묻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 학 단 신

용 인

은누리 수족점, 전통찾기 열려

전통차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용인캠페르스 한의학과연구모임 ‘은누리 수족점’은 지난 31일(8)부터 2일(목)까지 신강동의 2층 로비에서 전통차집을 열었다.

이 기간 동안 감람차, 대추차, 모과차 등 14종의 전통차가 천5백원에서 2천5백원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됐다. 이 행사를 준비한 최수진(자연·전자공학 1)군은 “전통차의 좋은 점을 알리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아울러 수익금은 겨울의료봉사 기금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철학과 좌담회 개최

철학과 학술부는 “대학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6일(월)오후 5시 30분 도서관 세미나 4층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강사는 ‘논리와 사고’ 강의를 맡고 있는 탁석산 교수가 하였다.

통번역협회 체육대회 진행

통번역협회는 지난 27일(토) 대운동장과 노전구장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은 농구, 축구, 배구, 레크리에이션, 회식 등이 진행됐다. 회장 안형대(통·유교 3)군은 “이 행사를 통해 회원간의 단결을 다지고 동아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열린 동문교향반의 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관 1층, 24시간 개방

용인캠페르스 도서관자치위원회(도자위)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편의가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10월 4일(수)부터 1층 열람실을 24시간 전면개방하고 2층 열람실을 밤 12시까지 운

서 울

‘올림’ 영화제 열려

영화제 개최 영화연구회 ‘올림’은 지난 30일(월)부터 이틀간 대강당에서 영화제를 열었다. “영화의, 정체성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페테리코 벨라니 감독의 ‘8과1/2’과 프란스 와 트루스 감독의 작품들 7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영화회의 영화를 뜻하는 이번 영화제의 제목은 관객들 영화에서 또다른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에서 따온 것이다.

이와 관련, 박정순(상경·무역 3)군은 “영화를 보며 영화속에 빠져 들지 않고 영화의 배경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하기” 이런 과정을 통해 관객들은 자신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방과 노래패 ‘새날’ 공연

신방과 노래패 ‘새날’이 지난 19일(수) 대학원 411호에서 제 3회 정기공연회를 치렀다. 이 공연은 나서 장에 기록해 놓은 그들의 영화를 공연으로 발표하는 ‘오션지 위의 낙서’를 주제로 열었다. 이번 공연은 ‘새날’ ‘천구’ ‘삼’ ‘조각’ 등의 작은 주제로 구성됐다. 대학생들의 실례인과 친구 문제, 자신의 진로문제, 그리고 조국의 통일을 노래로 표현하였으며 이번 공연을 준비한 노래패장 권오성(언문 3)은 “소극한 분위기를 통해 관객들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다”라며 행사 소감을 밝혔다.

선거열풍

지난 1일(수) 이리언과 과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서울캠페르를 후끈히 달군 선거열풍이 불고 있다.

선거열풍

한국의국어대학교 1996학년도 전기 각 대학원 학생모집

大學院 (☎ 961-4104, 962-7117)

1. 모집과정 및 학과인원

가. 석사학위과정(6개계열 39개학과): 각 학과 학과인원
이 문 학 계: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어, 일본어, 아랍어, 이탈리아, 힌디, 국어국문학, 포르투갈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유럽어문학, 언어학, 스칸디나비아어
인문과학계: 철학, 사학
지역 학 계: 아주지역, 중남미지역, 중동지역, 동유럽지역, 북미지역, 아프리카지역, 서구지역
사회과학계: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 학 계: 수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신설)
공 학 계: 컴퓨터공학
나. 박사학위과정(6개계열 24개학과): 각 학과 학과인원
이 문 학 계: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어, 일본어, 아랍어, 국어국문학, 언어학
인문과학계: 철학
지역 학 계: 국제관계연구학
사회과학계: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이 학 계: 수학, 물리학, 화학
공 학 계: 컴퓨터공학(신설)

2. 원서접수: 95년 11월 1일(수)부터 11월 15일(월)까지

3. 원서접수: 95년 11월 13일(월)부터 11월 15일(수) 17시까지

4. 시험일시: 95년 11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5.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1) 전공 2) 영어(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3) 수습시험

나. 박사과정: 1) 전공 2) 영어 3) 제2외국어(영어과, 국어국문학과, 언어학과, 철학과, 법학과) 4) 수습시험

經營情報大學院 (주) (☎ 961-4119, 965-7046)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각 00명
2. 모집학과: 경영정보학과(MIS, 재무·회계, 생산·운영관리, 조직·전략관리)
응용전산학과(소프트웨어공학전공)
3. 시험과목: 1) 영어 2) 수습시험
4. 원서접수: 95년 11월 1일(월)부터 11월 15일(수) 17시까지
5. 시험일시: 95년 11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 본 대학원은 첨단기술 분야인 경영정보학과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주간 석사학위과정임
* 교육의 목표는 현대경영학이론과 첨단컴퓨터 이론을 접목시켜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MIS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음
* 전문 경영인선생님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음

世界經營大學院 (주) (☎ 961-4109)

1.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각 학과 00명
2. 모집학과: 가. 경영학석사 - 국제통상학, 국제경영학, 해운경영학, 정보관리학, 보험경영학, 증권금융학(신설)
나. 경제학석사 - 국제경제학, 세계지역연구학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접수 및 접수: 95년 11월 13일(월)부터 12월 5일(화)까지
5. 전형일시: 95년 12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 국가공무원 및 기업체 간부는 특별 전형임
*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는 해수사 시험에 특전이 있음
* 국가공무원 및 군·경·직업학교 교육훈련계 수료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기존 무역대학원을 세계경영대학원으로 확대 개편하였음

教育大學院 (주) (☎ 961-4116, 963-6881)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각 전공 00명
2. 모집학과: 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서반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러시아어교육, 역사교육, 윤리교육, 철학교육, 상담심리, 교육행정, 상업교육, 유아교육, 전자계산교육, 수학교육(신설), 물리교육(신설), 화학교육(신설)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접수: 95년 11월 13일(월)부터 11월 24일(금)까지
5. 원서접수: 95년 11월 20일(월) 11월 24일(금)까지
6. 전형일시: 95년 12월 2일(토) 오후 2시부터
* 원직고사제에는 수료시(5학기)까지 수업료의 25%를 감면함
* 원직고사, 교과, 교양 및 정서사, 연구사, 교육행정(5급)에 제직공인자는 특별전형함

政策科學大學院 (주) (☎ 961-4093, 962-3950)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00명
2. 모집학과: 공공정책학과(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공공감사학과(공공감사전공) - 신설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전공) 신문방송학과(신문전공, 방송전공) 공공정보학과(광고전공, 홍보전공)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4. 원서접수 및 접수: 95년 11월 20일(월)부터 12월 4일(월)까지
5. 시험일시: 95년 12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 전공관련분야 실무경력자우대
* 국가공무원(군, 경찰)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

□ 방송평 - 한국 코미디의 위기

풍자적 웃음 증발한 짜증왕국



TV방송3사의 오락물은 넘을 수 없는 성역 '정치'의 벽에 부딪혀 시청자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해학과 풍자를 실종시켰다. 작위적인 웃음유발을 위한 연기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보다는 짜증을 쌓아간다.

지고, 나라의 수자인 전대통령의 비자금 문제, 그리고 부당한 5·18 불기소처분 판정 등은 코미디 프로그램 속에 적절히 녹아져 지금의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여 국민들에게 웃음만이 아닌 경각심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그것을 인정치 않는다.

코미디물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지금의 사회현실에 있다. 코미디물이 발전할 수 있다면 사회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은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니다. 비단 코미디물만이 사회의 벽에 부딪히는 그런 안조건의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가사에 대한 검찰기소사건, 그리고 마광수와 즐거는 사라사건, 영화감독의 일도당토 않은 규제 및 삭제 등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이 사회는 아직까지도 닫힌 사회일 뿐이다. 생각과 표현의 자유란 허울좋은 명분에서, 코미디물은 갈 길을 잃고 허우적대면서 시청자들에게까지 냉대와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그 속에서 헤어나와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코미디 제작자들의 각성과 시청자들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무엇보다도 사회의 모순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물론 깊이 뿌리박힌 사회의 모순을 전방적으로 뜯어 고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줄 바뀐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코미디물을 포함한 방송사 및 언론계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현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강희현
(서양·불어 2)

요즘 상당한 양의 코미디 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효만큼 시청자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일부뿐이다.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로 부터 냉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코미디물의 목적에 걸맞은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요즘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별면' 수준도 아닌 스트레스와 짜증을 유발시키기에 가깝다.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 속에서 '세상 웃기기'라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즘의 억지웃음을 유발시키는 다른 류와는 다른 왕정시대에 지금의 현재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신하인 '연상'은 방송상 전 대통령과 이름과 비슷하다하여 '와상'으로 바뀌었다. 왕비, 왜 그리 한심한 '오'가 문제가 된 것이다. 왕이 '남자'라는 것은 지금의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다 하여 '여자'로 바뀌

었다고 어느 신문에선 표집고 있다. 또한 모 방송에서 9시 뉴스 이후에 침묵하게 정치인과 비슷한 인형으로 사회 풍자를 했던 프로그램도 숨어서 사라졌으며, 코미디 전담대라는 프로는 취지는 사회풍자였으나 점차 그 취지와는 상반되게 요즘의 코미디물과 다를 바 없어졌다. 그나마 관심을 받던 코미디물까지도 오히려 발전은 커녕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코미디 프로그램의 실정이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퇴보하는 이유를 코미디 프로그램 자체에서만 찾아야 할 것인가? 또한 요즘의 코미디물이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외국물들을 다량 수입해 모방하는 것이 과연 코미디물 자체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인가? 코미디 프로그램은 우리 정서에 맞는, 마치 마당놀이극과 같이, 그래서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웃음이 아닌 해학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항사건이 연이어 터



잔업

침하근무, 잔업으로 혹사당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여성 노동자 시대의 힘든 노동들을 그리고 있다. 거친 관습의 힘과 나무의 숨결이 '잔업'의 힘겨움을 더해준다.

이은경
(철학과 89학번)

□ 시

파리를 죽이며

날아다니는 꿈을 꾸어 보았는가?

저녁을 먹고
무로함 때문에 파리를 죽이며
나는 순간 살아있고
사지만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불편 뒤틀음으로, 떨어진 파리를
무로함 때문에 눌러 죽이면
파리는 눈 한번 부라리지 못하고
순 한번 못 비비고 죽는다

나는 무로함 때문에
무로 때문에 파리를 죽이지만
내장이 파열되어 무덤없이 죽어도
날아보지 않았는가

내 저녁 밥상에 앉고
내 이부자리에 눕고
파리가 나와 다르다는 것은 난다는 것 뿐인데
무로함 때문에 파리를 죽이고
그밤 꿈으로도 날지 못한 나는
또 못 나는 파리처럼
무로하게 살아가느니

조현우
(사법대·한글 2)



경적을 울리며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6공비리 척결을 위한 이날 '국민행동의 날' 대회는 모든 시민들의 울림으로 민의 뜻이 무언지를 보여주었다. 경각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종묘에서는 1분간 자동차 경적 소리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거리는 하얀 손수건으로 물결쳤다

정유정 기자

얼마라면 당신의 부모·형제가 잊혀지겠습니까?



5·18 위증수사 논란에 이어 4천억이라는 돈으로 흑시 5·18을 잊고 계시진 않습니까?
당신의 관심이 돈으로 옮겨갔을 때 5·18 문제는 은밀하게 은폐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5·18공소권없음'의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으로 앓아간 살인죄보다
돈의 문제가 더 큰 관심으로 옮겨가는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18학살자 처벌과 비자금 문제는 같은고리에 있다는 것을...

민족자주권
외대학보